

# 단국대학교 2021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인문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치몽은 한눈에 봐도 가난한 마을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답게 변변한 세간도 없다. 사람들이 옷차림도 남루하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놀랄 만큼 밝다. 순해 보이고 잘 웃는다. 몸가짐은 부드러우면서 당당하다. 무엇보다 매 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를 접대한다. 동네를 어슬렁거리기가 무서울 정도다. 활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면 집으로 뛰어 들어가 돛자리를 꺼내고, 집 앞을 지나다 인사라도 하면 바로 \*방창과 아라 세례를 받아야 한다. 논두렁길을 걷다 보면 어린 소년이 뛰어와 옷 속에 품은 달걀을 수줍게 내민다. 이 동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으며 \*빈한한 살림마저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듯했다. ……(중략)…… 치몽에서는 늘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공동 수돗가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도 움직여야만 한다. 빨래는 당연히 손으로 해야 하고, 쌀도 키로 골라야 하며, 곡물은 맷돌을 돌려 갈아야 한다. 난방이 되지 않아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어야만 하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몸을 써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상하게도 살아 있음을 실감케 한다. ……(중략)…… 이 나라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카메라로 찍는 삶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이다. 그러다 보니 부탄에서 일과 놀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노는 듯 일하고 일하듯 논다. 진정한 \*호모 루덴스다. 이런 그들에게 놀이는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아직 노동하기 위해 살지는 않는다.

\*방창과 아라 : 부탄의 전통주

\*빈한한(貧寒-) :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한 ㉠ 그는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했다.

\*호모 루덴스(Homo ludens) : ‘노는 인간’ 또는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뜻. 네델란드의 역사학자 하위징아가 제창한 개념으로 유희라는 말은 단순히 논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가리킴

출처 : 정민 외, 『고등학교 국어』

[나]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새 외투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만 풀이 죽어 버렸다. 무슨 돈으로 새 외투를 맞춘단 말인가? ……(중략)…… 하지만 나머지 절반인 40루블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궁리 끝에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적어도 1년간은 생활비를 줄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저녁은 굶고 저녁마다 마시던 차도 끊고 촛불도 켜지 않기로 했다. 만약 촛불을 켜야 할 일이 생기면 하숙집 아주머니 방에 있는 촛불을 이용하면 될 터였다. 길에서는 가급적 살살 걷고, 돌과 석판을 밟을 때는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 신발 밑창이 빨리 닳지 않도록 주의하고, 속옷이 빨리 해지지 않도록 세탁소에 맡기는 횟수도 줄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뉘는 했지만 무척 아끼는 무명 가운 하나만 입고 지내기로 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그런 궁핍한 생활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 익숙해지더니 어느덧 자연스레 몸에 배게 되었고, 나중에는 저녁을 굶는 것이 완전히 습관처럼 되어 버렸다. 대신 그는 앞으로 생길 새 외투에 대한 희망을 머릿속에 그려 보며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존재가 보다 완전해진 것 같았다. 마치 결혼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에게서 일생을 같이 지내 주겠다는 승낙이라도 받은 기분이었다. 그 여자 친구는 바로, 두꺼운 솜과 해지지 않는 튼튼한 안감을 댄 외투였다.

그는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고, 확고한 목표를 정한 사람처럼 성격도 굳건해졌다. 그의 얼굴과 행동에서 보였던 의심과 주저의 빛이 사라졌고, 행동에 앞서 언제나 머뭇거리기만 하던 망설임이 자취를 감췄다. 때로는 눈에서 불꽃이 일었고, 머릿속에서는 옷깃에다가 담비 가죽을 달아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주 대담한 생각까지 떠올랐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주의력을 흠뜨리기도 하였다. 한번은 서류를 베껴 쓰다가 하마터면 글자를 틀릴 뻔하여 ‘악’ 소리를 지르고 성호를 그은 적도 있었다.

출처 : 고골, 『검찰관·외투』

[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봄, 생물 첫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잊고 안 가져와 집에까지 가지러 돌아간 일이 있다. 우리 집은 그때 학교에서 걸으면 십오 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으므로, 냇다 뛰어서 왕복을 하면, 수업에는 거의 지장없이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그 당시에는 아주 순진한 학생이어서—옛날 중학생들은 모두 순진했던 것 같은데—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열심히 뛰어 집으로 가서는 교과서를 들고 물을 한 컵 꿀꺽꿀꺽 마시고서는, 다시 학교를 향해서 뛰었다. 우리 집과 학교 사이에는 강이 한줄기 흐르고 있었다. 그리 깊지도 않고, 깨끗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리고 거기에 낚은 다리가 걸려 정취를 더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은 다리였다. 그 주변은 공원이고, 협죽도가 눈가리개처럼 줄지어 피어 있었다. 다리 한가운데 서서 난간에 기대어 남쪽 방향을 바라보았더니, 바다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하도 눈이 부셔 나도 모르게 눈을 찡그렸다. '따끈따끈'이란 형용사가 딱 어울린다. 마치 마음이 느긋하게 풀어져 버릴 것 같이 기분 좋은 봄날 오후였다. 사방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지표에서 이삼 센티미터쯤 등실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한숨을 돌리며 땀을 닦은 다음, 강변의 잔디에 누워 하늘을 바라다보았다. 힘껏 달렸잖아, 잠시 쉬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말이다. 머리 위로는 흰 구름이 꿈쩍않고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눈 앞에 손가락을 세워 재어 보니, 조금씩 조금씩 동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머리 밑에 뻗 생물 교과서에서도 역시 봄 냄새가 났다. 개구리의 시신경과 저 신비스런 \*랑겔한스 섬에서도 봄 냄새가 풍겼다. 눈을 감으니 부드러운 모래톱을 어루만지며 지나가는 강물 소리가 들렸다. 봄의 소용돌이 속으로 삼켜질 듯 무르익은 사월의 오후에, 또다시 생물 수업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961년 봄의 따스한 어둠 속에서, 나는 살며시 손을 뻗어 랑겔한스 섬의 물가를 더듬었다.

\*랑겔한스섬: 췌장에 있는 내분비세포. 췌장 전체에 섬 모양으로 산재

출처 :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 3』

[문제 2]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와 [라]의 태도를 비교하고, [다]와 [라] 중 하나에 입각하여 [마]를 평가하십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매우 복잡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타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타인에게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여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자신만의 이익이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하고, 그러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과 이웃에 대한 관용적 태도도 필요하다.

도덕적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과 이웃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기부나 사회봉사 등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출처 :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자연적 의무는 보편적이다.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 즉 이성적 존재에게 지는 의무다. 인간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며, 잔인한 행동을 삼가는 등의 의무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의무는 합의라는 절차가 필요 없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합의했을 때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자연적 의무와 달리 자발적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며, 합의에서 생긴다. 내가 당신 집에 페인트칠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면 (이를테면 돈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라도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나는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까지 죄다 페인트칠을 해줄 의무는 없다. 자유주의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된다. 자유주의의 정의는 (중립적 틀에서 규정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하지만,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행동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에 관여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미리 약속을 했는지, 했다면 누구와 했는지에 달렸다.

……(중략)……

자연적 의무와 달리 연대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다. 그 의무에는 우리가 떠안아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상대를 이성적 존재가 아닌,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발적 의무와 달리, 합의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이 책임에 담긴 도덕의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중략)……

연대와 소속 의무는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향한다. 내가 사는 특정 공동체에서 나오는 특별한 의무 가운데 일부는 같은 공동체 사람에 대한 의무다. 그러나 나머지는 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다.

출처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다] 과거 전쟁에서 300만 동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가족의 행복을 바라

며 싸움터에서 돌아가신 분들. 종전 후, 극한(極寒)의 또는 작열하는 머나먼 타향에서 굶주림과 병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분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도쿄를 비롯한 각 도시에서의 폭격, 오키나와 지상전 등으로 많은 시민이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나라에서도 젊은이들의 목숨이 수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동남아, 태평양 섬 등 전장이 된 지역에서는 전투뿐 아니라 식량난 등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고 희생됐습니다. 전쟁터의 그늘에서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해아릴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란 실은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각자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되새기면서 지금 다시 할 말을 잃고 단장(斷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희생 위에 현재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후 일본의 원점입니다.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 식민지 지배와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존중되는 세계가 돼야 합니다.

전쟁에 대한 깊은 회오(悔悟)의 마음과 함께 일본은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 법의 지배를 중시하고 오로지 부전의 맹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70년에 걸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에 우리는 조용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런 변하지 않는 방침을 앞으로 관철해 가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 사람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전후 일관되게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하더라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 전화로 도탄의 고통을 맞본 사람들의 아픈 기억은 앞으로도 절대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전후 60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아시아 각지에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고 일본 재건의 원동력이 된 사실을. 중국에 두고 온 3000명 가까운 일본 어린이들이 무사히 성장하고 다시 조국 땅을 밟게 된 사실을.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 있던 포로들이 일본을 찾아 전사자들을 위한 위령을 계속해 주고 있는 사실을. 전쟁의 고통을 겪은 중국인 여러분과 일본군에 의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전쟁 포로들이 그토록 관대하려면 얼마만큼 갈등하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용의 마음으로 일본은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 70년을 계기로 일본은 화해를 위해 힘을 써 준 모든 나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일본에서는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를 넘었습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아들과 손자 등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서울신문』, 2015. 8. 15.

[라] 양심을 꺼리고 책임을 외면하며 회피하고 침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이 종결되어 홀로코스트라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진실이 모두 밝혀졌을 때,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고 혹은 단지 짐작만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민족 전체의 유죄 혹은 무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죄와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는 밝혀진 것도 있고 여전히 숨겨진 것도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백한 죄도 있고 부인한 죄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온전한 의식을 갖고 지낸 사람이라면 오늘날 조용히 스스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그 당시 어린이였거나 혹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자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단지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죄를 뒤집어씌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조(先祖)들은 이들에게 심각한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또한 젊으나 늙으나, 이 과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과거의 결과를 넘겨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노년층은 이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는 데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나중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인간적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시금 그러한 위험성에 감염될 소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정치적 책임을 떠맡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이 역사에 작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의 나이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대해 지녀야 할 책임이란 꿈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김양호, 『세계의 명연설』

[마]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였으나, 오늘날까지도 이를 부정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관을 내세우며 이를 반영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통과시켰다. 지금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범을 안치한 야스쿠니 신사에는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3]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방안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성적, 경제수준, 부모와의 관계가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와 관계와 성적에 따른 삶의 만족 차이

(단위 : %)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경우
성적	上	54.1	80.1
	中	47.7*	75.6*
	下	39.1	67.0

■ 어머니와의 관계와 경제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 차이

(단위 : %)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경우
경제 수준	上	49	81
	中	34*	73*
	下	29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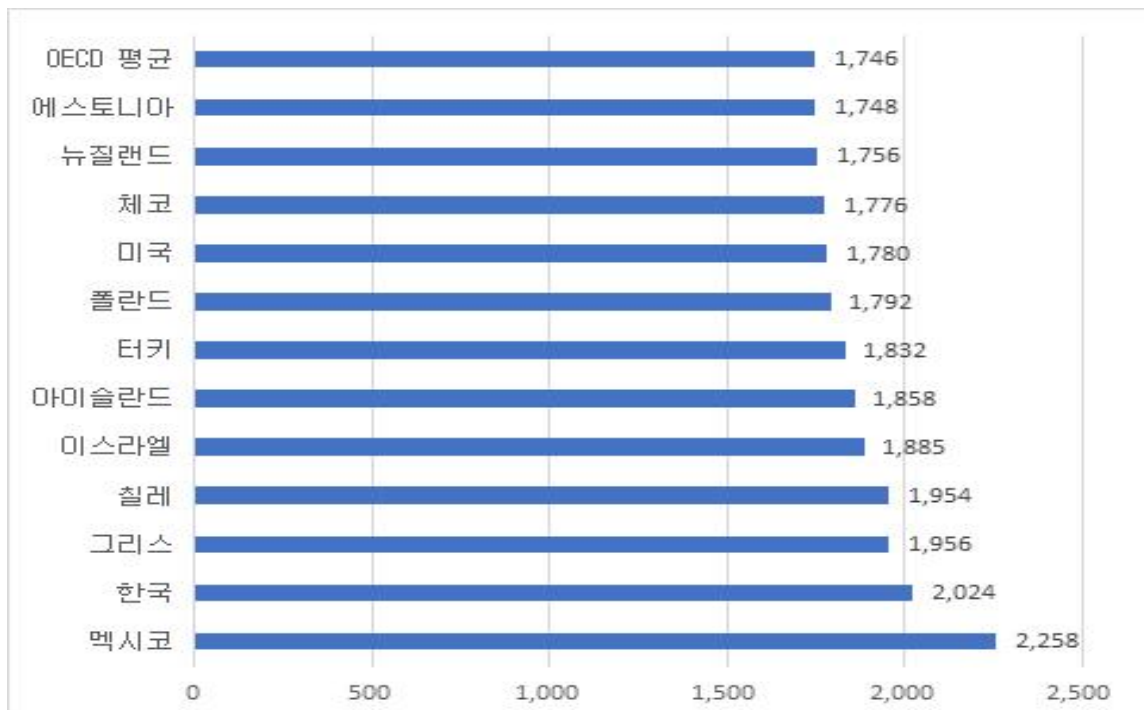
\*성적(경제 수준)이 '중간(中)' 수준일 때 아버지(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47.7(34)%만 삶에 만족하지만, 아버지(어머니)와 관계가 좋으면 75.6(73)%가 삶에 만족한다는 의미임

출처 : 『연합뉴스』, 2016. 5. 2.

[나]

■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2017년)

(단위 : 시간)



출처 : 『KBS 뉴스』, 2019. 4. 30.

■ 나라별 직무 스트레스 비율\*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87	79	72	78

\* 직무 스트레스 비율은 '일할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직장인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 『SBSCNBC』, 2014. 1. 15.

■ 전체 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

(단위 : %, 매년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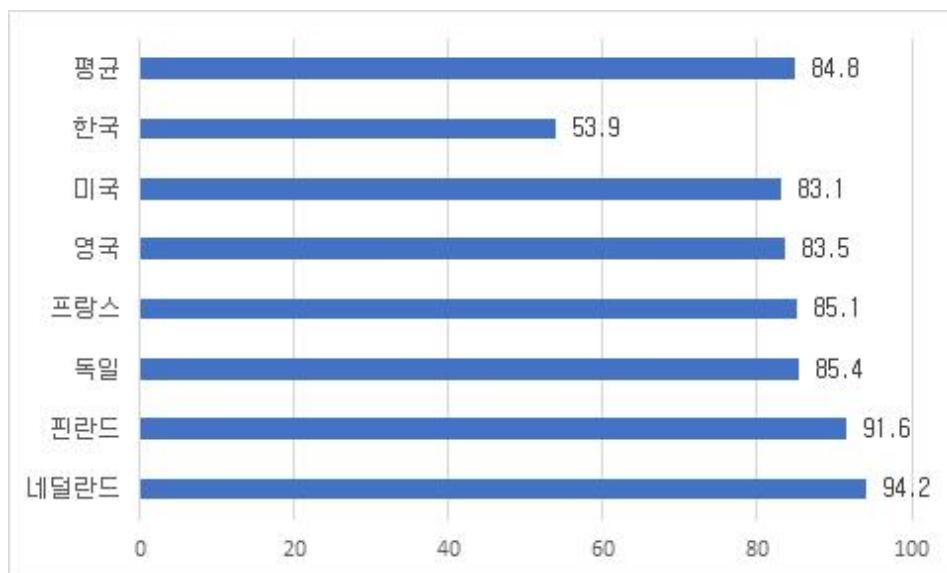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중	43.3	44.2	44.1	45.5	44.6	46.3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다]

■ OECD 청소년 설문 '삶에 만족한다'

(단위 : %)



출처 :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의 국제 비교』

■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 비교 - 물질적 행복 순위(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국 기준)

순위	국가	점수
1	핀란드	120
2	덴마크	114
3	대한민국	112
4	독일	110
5	스웨덴	108

■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 비교 - 주관적 행복 순위(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기준)

순위	국가	점수
1	에스파냐	118
2	스위스	113
2	오스트리아	113
4	덴마크	109
...	...	...
22	대한민국	82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6)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여자 중·고생의 4명 중 1명, 남자 중·고생의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자살 생각에 대한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안지연 경인여대 간호학과 교수팀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 중·고생 6만8043명(남학생 3만5204명, 여학생 3명2839명)의 우울증과 자살사고(思考) 등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남학생은 19.7%, 여학생은 27.8%로 집계됐다. 자살사고율은 남학생이 9.6%, 여학생은 13.9%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자살사고율은 남녀 모두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중학생의 우울증 유병율은 고등학생보다 1.1~1.2배 높았다. 중학생 자살사고율도 고등학생보다 1.3~1.6배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스트레스와 불행감이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남학생 대비 스트레스가 심한 남학생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6.7배(여학생은 7배)에 달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남학생보다 우울증 위험이 3.2배(여학생은 3.4배) 높았다.

안 교수팀은 논문에서 “중학생의 우울증·자살사고 위험도가 고등학생보다 높으므로 청소년 정신 건강 관리는 중학생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신 건강 측면에선 이차 성장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청소년기 발달과업(정체성·인생 목표·또래 관계 등) 성취가 중첩되는 시기인 중학생이 더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시사저널』, 2017. 4. 25.